

8개월 대장정...자동차 경주대회 '현대 N 페스티벌' 성료

국내 최대 규모 동일 차종·사양 '원메이크 레이스' 프로 eN1 등 4개 클래스 올 시즌 종합 시상식 개최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경주 대회인 현대 N 페스티벌이 8개월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현대자동차는 16일 "지난 14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현대 N 아카이드(가칭)에서 '현대 N 페스티벌' 2024시즌 종합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현대 N 페스티벌 출전 팀과 선수를 비롯해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올해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둔 팀과 선수에게 트로피를 전달했다.

현대 N 페스티벌은 모터스포츠 팬 모두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로 동일한 차종 및 사양의 경주자로 경쟁하는 자동차 경주 대회다.

올 시즌 현대 N 페스티벌은 프로 대회인 ▲eN1 ▲N1과 아마추어 대회인 ▲N2 ▲N TT 등 총 4개의 클래스로 구분해 지난 4월 인제 스피드돔에서 열린 1라운드

를 시작으로 8개월 동안 경기를 운영했다. 올해 팀 부문 종합 우승은 클래스별 로 eN1은 금호 SL 모터스포츠팀, N1은 DCT 레이싱팀이 차지했다. 선수 부문

에서는 eN1은 박준의 선수, N1은 김규민 선수가 우승했고 N2 및 N TT는 각각 김효겸, 최유준 선수가 우승했다.

DCT 레이싱팀 김영찬 선수는 '현대 주니어 드라이버'에 선정돼 '2025 다투르 부르크링 24시 내구 레이스'에 출전 기회를 얻었다.

현대차는 2022년부터 현대 주니어 드라이버를 선정해 다투르 부르크링 24시 내구 레이스와 글로벌 양산차 기반 자동차 경주 대회 'TCR(Touring Car Race) 이태리' 등 세계 대회에 출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시상식 이후 현대차는 현대 N 페스티벌을 글로벌 모터스포츠 대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 시즌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2025시즌 현대 N 페스티벌은 내년 4월에 1라운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6차례 경기를 펼친다.

또한 현대 N 페스티벌과 함께 TCR 월드투어와 TCR 아시아가 서포트 레이스로 참여한다. TCR 월드투어는 내년 10월 인제 서킷에서 국내 최초로 진행되고 TCR 아시아도 9월과 10월에 해당 서



현대자동차는 지난 14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현대 N 아카이드(가칭)에서 '현대 N 페스티벌' 2024시즌 종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박준우 현대차 N브랜드매니지먼트 상무가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킷에서 시행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년 11월에 치러질 현대 N 페스티벌 최종전에 글로벌 원메이크 레이스 '중국 현대 N 컵'과 '미국 현대 N 트로피컵' 우승자도 출전해 국내 선수들과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는 '현대 클릭 스피드 페스티벌(2003-2010)'을 시작으로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2011-2018)'을 거쳐 현

재의 현대 N 페스티벌까지 20년 넘게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회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개최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현대 N 페스티벌에 아이오닉5 N 기반 경주차 '아이오닉5 NeNI 컵(Cup car)'로 전기차 원메이크 레이스를 운영해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에 전기차의 시작을 알렸다.

이외에도 현대차는 모터스포츠 관객

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를 경기장으로 새로 추가하고 지난 10월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을 운영하는 등 고객 행사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 시즌 전체 클래스의 선수가 작년 80명에서 올해 129명으로 증가했고 올 시즌 누적 관람객 수도 3만5천명 이상을 기록하며 성장리에

대회를 마쳤다.

현대차 N브랜드매니지먼트 실장 박준우 상무는 "현대차는 국내 모터스포츠 문화의 발전과 글로벌 확산을 위해 현대 N 페스티벌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며 "국내 선수들의 해외 진출은 물론 글로벌 모터스포츠 대회를 한국에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금호타이어, 그랑 콜레오스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주행성능·정속성 강화 '크루젠 HP71 제품'

금호타이어는 16일 "르노코리아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랑 콜레오스(Grand Koleos)'에 신차용

(OE, Original Equipment)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는 모던한 디



GRAND KOLEOS x CRUGEN HP71

자인, 넉넉하고 조용한 실내 공간, 업그레이드된 안전 사양을 바탕으로 르노코리아의 뛰어난 생산 노하우와 품질 경쟁력이 돋보이는 차량이다. 강력한 주행 성능과 우수한 연비 효율을 갖춰 출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그랑 콜레오스에 공급되는 금호타이어 크루젠 HP71 제품은 부드러운 주행성능과 정속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컴포트 SUV용 타이어다. 해당 제품은 차별화된 프리미엄 소재와 차세대 컴파운드를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마모 성능과 스노우 성능을 20% 이상 높였다.

금호타이어는 235/50R19, 245/45R20 2개 사이즈를 공급한다. 이 중 20인치 사이즈에는 폼(Foam)이 부착된 '공명을 저감 타이어'가 적용돼 조용한 주행을 원하는 SUV 운전자들을 위해 정속성

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김인수 금호타이어 OE영업본부장은 "연비, 성능, 신기술이 어우러진 그랑 콜레오스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금호타이어는 꾸준히 주요 완성차 브랜드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올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인 4조5천600억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판매 증대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정일택 대표이사 체제 하에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및 품질을 고도화하고 영업 및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해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임채만 기자

기아 오토랜드 광주 '폐기물 매립 제로' 최고 등급 획득

기아는 16일 "오토랜드 광주가 글로벌 응용안전 과학분야 선도기업 UL 솔루션스(UL Solutions)의 '폐기물 매립 제로' 검증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사진)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매립제로 검증은 폐기물 자원순환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에 따라 ▲플래티넘(99.5%-100%) ▲골드(95%-99.5%미만) ▲실버(90%-95%미만)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공정상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자원 효율적 생산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광주 시와 '산업 폐플라스틱 재활용전환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기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아는 친



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 (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자세·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